

수젠택, 1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추진...“책임 경영 강화”

- ▶ 설립 이래 최초로 배당,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
- ▶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연구 통해 신규 사업 가속화하며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
- ▶ 보통주, 전환우선주 1주당 150원 현금배당 진행...배당금 총액 24.8억 원

수젠택(253840, 대표이사 손미진)은 이사회를 열고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‘12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건’을 오는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

체외진단 글로벌 선도기업 수젠택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120억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추진한다. 취득예정주식수는 전일 종가기준으로 약 142만 주로 취득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2023년 9월 29일까지다. 취득방법은 코스닥 시장을 통한 장내 매수다. 이번 주주총회에서 본 안건이 가결되고 나면 자사주 매입에 따른 총 보유 주식 수와 보유 비율은 자사주 매입 완료 후 공시될 예정이다.

회사측은 “축적한 성장 재원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 고도화 및 신사업 개발 등을 진행하며 회사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”이라며 “어려운 대외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는 당사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 등으로 신규 사업을 가속화해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”고 설명했다.

이어 “작년 한 해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어져 국내외 진단키트 수요 급증, 주요 제품들의 판매 호조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고 이 결과를 주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현금 배당도 함께 실시하게 됐다”며 “수젠택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시기인 만큼 장기적인 기업가치 증대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주주들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한편 수젠택은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 2일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1주당 150원 현금 배당하기로 공시한 바 있다. 이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액 1,000억 원을 돌파한 만큼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.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배당주식수는 전환우선주 29만 주를 포함한 총 발행 주식수인 약 1,656만 주다. 이에 따라 배당금 총액은 약 24억 8,413만 원이 될 전망이다. 액면배당율은 30%, 시가배당률은 1.39%다.

회사측은 3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 등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. 배당금은 상법 제464조의 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.